

주지인

주지인(十地院)은 원래 가이산도(開山堂) 서쪽에 있는 광대한 부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. 현재의 장소는 쇼샤잔 산에서 유일하게 세토 내해를 바라볼 수 있는 탑두(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작은 사원)입니다. 주지인에는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. 건물의 이름인 주지(十地)는 보살이 되기 위한 52 단계 중 마지막 10 단계를 가리킵니다.

이 건물은 대히트한 할리우드 영화 『라스트 사무라이』(2003) 촬영 당시 톰 크루즈가 촬영 사이사이에 휴식을 위해 이용했습니다. 절 사람들은 이곳을 ‘톰의 집’이라고 불렀습니다.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톰 크루즈는 매일 고베의 호텔에서 전용 헬리콥터로 엔고지 절에 다녔습니다.